

제3절 무속신앙

1. 무속신앙의 개관

무속(巫俗)은 무당을 주축으로 하여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자연종교적 현상이다.⁸²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현상 가운데서도 무속은 가장 확고한 신앙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속의 유형은 크게 강신무(降神巫)와 세습무로 나뉘볼 수 있다. 강신무는 강신에 의해서 신병(身病)체험을 통해 무당으로 성장하는 경우이며, 세습무는 신의 영험이 없이 혈통을 따라 무업(巫業)을 전수 받으면서 세습되는 사제권을 기반으로 무속을 주재하는 무당을 뜻한다. 울진지역은 세습무가 대종을 이룬다.

무속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굿의 제의 순서는 대개 성주굿, 삼신굿, 조왕굿, 지신굿 등 다신에게 기원하는 제의로부터 출발하여 서낭굿, 당산굿, 용왕굿 등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원하는 제의를 거쳐 우주의 천신으로 이어져 진행된다. 곧 무속은 민중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민간신앙의 모두를 집약, 체계화하여 굿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진지역의 대표적 무속은 마을신(洞神)에 대한 제의로는 동제와 별신굿이 있다.⁸³ 울진 지역 해촌에서는 매년 정월보름에 동제를 지내는데 ‘서낭제사’라고 하며, 독축고사형(讀祝告祀型)으로 지낸다. 이와 별도로 울진지역의 해촌에서 전승되는 별신굿은 1~5년마다 한 번 씩 전문무속집단인 세습무를 초청하여 벌이는 마을 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울진지역에서는 별신굿을 ‘연신’이라고 하는데, 마을의 안과태평(安過太平)과 풍요다산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제와 같은 목적을 갖지만 모시는 신격(神格)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동제에서는 마을신인 ‘골매기’만을 모시지만, 별신굿에서는 골매기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불러 모시고 굿판을 벌인다. 한편 제의의 분위기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동제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지만, 별신굿은 시끌벅적한 난장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축제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

한편 오구굿은 망령을 저승으로 보내는 굿으로서 망령 가운데서도 주로 원통하게 죽은 망령들, 말하자면 객사(客死), 수사(水死), 미혼사(未婚死) 등으로 죽은 망령을 위안하는 굿이다. 큰 사고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합동으로 오구굿을 하기도 하며 미혼으로 죽은 망령을 위해서는 망령 중에서 미혼의 배우자를 택해서 영혼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82. 김태근, 1996, 「무속의 역사」 『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233쪽

83. 한양명 2001, 『도리깨질 끝나면 점심은 없다』,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한수원(주)한울원자력본부

마을 공동의 제의인 별신굿이 축제적인 제의인 데 비해서, 밤을 새우면서 해서 무당들이 ‘밤저(夜祭)’라고 부르는 오구굿은 망자만을 위한 제의이므로 별신굿보다는 축제성이 약한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굿이다.

2. 별신굿의 연행 과정⁸⁴

울진의 해촌지방에서 대개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벨신, 별신, 풍어굿 등으로 불린다. 본 글에서 기술한 별신굿의 제의절차는 2014년 4월13일부터 16일까지 후포리 노반계와 후포풍어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별신굿 연행과정이다.

1) 거리굿

맨 마지막에 하는 굿이다. 굿을 하는 동안 일일이 모시지 못했던 잡귀 잡신들을 모두 청해서 위로하고 돌려보내는 굿이다. 남자 무당이 간단한 분장을 한 뒤 과장된 몸짓과 익살스러운 대사로 일상적인 생활 주변의 일을 재미있게 묘사한다. 남무의 일인다역으로 이루어지며 해학적이다. 제물(祭物)을 섞어 만든 밥인 ‘짬밥’을 바가지로 퍼서 밖에 버리면 다음 거리로 넘어가는 형태를 취한다. 현실 생활을 가장 잘 반영한 굿이다.

2) 골매기청좌굿

부정이 물려진 깨끗한 굿판에 골매기 서낭님을 청하러 간다고 알리는 굿이다. 무녀는 쾌자를 입고 오른손엔 부채 들고 왼손엔 수건을 든다. 굿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이제 신을 청하러 가니 어서 오셔서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3) 군웅장수굿

‘넛동우굿’이라고도 한다. 군웅장수는 농신(農神) 또는 장수신(將帥神)이다. 군웅장수는 욕심이 많아 잘 모셔야 하므로 역사적으로 이름이 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장수들을 불러 장수풀이를 한 뒤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한다.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자손들이 아무 사고 없이 지내게 해 달라는 뜻에서 군웅장수신을 위한다고 한다. 다른 거리와 마찬가지로 신을 맞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장수풀이에서 무녀는 장군신을 즐겁게 놀리기 위해 신칼을 들고 빠른 춤을 춘 뒤 맨 끝에 넛동이를 입으로 물어 들어 올린다. 이 굿에서 무녀는 다른 굿과 달리 철릭 모양의 활옷을 입는다. 장단은 청보 1장에서 5장까지이다.

84. 아래의 별신굿의 연행과정은 2014년 4월13일부터 16일까지 후포리 노반계와 후포풍어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별신굿 연행현장에 대한 참여조사 내용을 기술하였다.

4) 꽃노래굿

굿의 후반부에 하는 놀이굿이다. 여러 무녀가 나와 꽃을 양손에 갈라 쥐고 원무를 추고 노래도 하면서 진행한다. 춤과 노래를 통해 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가무오신(歌舞娛神)을 담은 굿이다.

5) 당맞이굿

청좌굿이 끝나면 무당들이 모두 나와 서낭당으로 향한다. 당에 이르러서는 신을 모시러 왔다고 고하고 당 앞에서 굿을 한다. 당맞이를 다한 후 신을 잘 내리는 마을사람이 서낭대를 잡고 ‘대내림’을 한다. 무녀는 신을 달래면서 즐겁게 해준 다음 골매기가 좌정한 서낭대를 모시고 굿당으로 온다.

6) 등노래굿

굿당에 달아둔 탑등을 떼어 들고 진행하는 굿이다. 이 등은 석가여래가 사월 초파일날 하늘에서 등을 타고 내려왔던 것을 상징한다. 무녀가 탑등을 들고 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한다.

7) 뱃노래굿

굿판에 매어놓았던 용선(龍船)에 흰 무명천을 길게 매어 그 줄을 무녀들과 마을 사람들이 잡고 흔들면서 무녀가 노래를 부른다. 용선은 망인이 타고 저승으로 가는 배이고 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수단이지만, 어촌의 사람들은 만선의 풍어를 축원하기 위해서 줄을 잡기도 한다.

8) 부정굿

부정굿은 굿판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굿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굿이 벌어진다. 굿당을 차려놓고 굿을 할 준비가 모두 끝나면 무녀가 앉아서 무가(巫歌)를 읊조리고, 남자 무당들은 무녀 주위에 둘러앉아 ‘푸너리장단’으로 무악(巫樂)을 반주하기 시작한다. 푸너리장단은 모든 굿에서 여는 장단으로 사용된다.

9) 산신굿

산신굿은 산신을 위하는 굿이다. 여러 명산의 산신을 청하여 소원성취를 축원한다.

10) 성주굿

성주신은 집안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신(家神) 가운데 으뜸이다. 성주신은 집

안뿐만 아니라 배에도 모신다. 집의 성주를 위하는 것은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배의 성주를 위하는 것은 풍어와 무사고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성주굿에서는 8도 대목(大木)이 나오는 대목, 톱질하는 대목, 병신 흥내 내는 대목, 소고치고 상모 돌리는 풍물 대목 등이 연희된다.

11) 세존굿

세존굿은 자손을 위한 굿이다. 장단은 청보장단을 사용하였으며, 중도독을 다스리는 ‘중도독잡이’가 세존굿에 이어서 벌어진다.

12) 손님굿

마마와 흥역을 퍼트리는 신인 ‘손님’을 모시는 굿이다. 손님굿을 달리 ‘마마굿’이라고도 한다.

13) 심청굿

심청굿에서 무녀는 갓을 쓰고 ‘손대’를 어깨에 메고 굿을 한다. 심청굿은 서사무가를 구연하면 진행한다. 주로 무녀와 장구잡이 둘이서 굿을 진행한다.

14) 용왕굿

해촌에서 중시되는 용왕을 모셔와 풍어를 비는 굿이다. 용왕은 바다 일을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므로 무당들도 신경을 많이 쓴다. 선주들이 중심이 되어 풍어를 빌고 소원성취를 바라며 소지를 올린다. 굿하는 중에 바닷일에 종사하는 선주나 잠수부 등을 불러 내어, 만선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그들의 머리카락을 한지로 묶는다. 용왕굿은 청보장단을 사용한다.

15) 제면굿

제면굿은 ‘제민굿’, ‘계면굿’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어떻게 해서 무녀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을 밝힌 굿이다. 이 굿의 끝부분에서 밤톨 모양의 흰떡을 ‘제면떡’이라고 하여 무녀들이 팔기도 하고, 굿당의 관객들에게 던져주기도 한다. 이때 제면떡은 농사에서는 볍씨와 잡곡씨를 바다 일에서는 미역씨 등을 뜻한다고 한다.

16) 조상굿

여러 집안의 조상을 모시고 위하는 굿이다. 무녀는 “각성받이 조상님네요. 육성받이 조상님네요. 가가호호 차례로, 너도 가자 나도 가자.”라고 읊으며 굿을 시작한다. 먼저 마을 전체

의 조상인 골매기서낭신을 모신 뒤에 가가호호의 조상을 청하여 모시고, 자손들을 잘 돌봐주도록 축원한다. 장단은 청보장단을 사용한다.

17) 지신굿

토지지신(土地之神)을 위한 굿이나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지신께서 노하지 마시고 ‘동토살’을 막아서, 모든 이의 살을 막아달라는 뜻에서 한다. 토지지신을 청해 부른 연 후에 어느 터전 어느 명당이든지 치성을 드려서 그 터전이 잘 되게 해 달라는 내용과 생업과 자손을 잘 돌봐주고 액을 막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 천왕굿

일명 원님굿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왕(天王)인 듯하나 천왕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천왕굿에서는 우리나라가 명당임을 밝히고 치국잡이를 한 연후에 불교적인 색깔이 짙은 천왕풀이를 한다. 천왕굿이 끝나면 남무들이 원님놀이를 한다. ‘도리강관 원놀이’라고도 하는 이 촌극은 새로 원이 부임하면서 ‘도리강관’과 기타 다른 이속들, 그리고 하인인 ‘고딕이’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19) 화해굿

별신굿에는 여럿의 신들이 모셔진다. 화해굿은 별신굿에 모셔진 여럿의 신들이 불화하지 않고 화해하여 굿을 잘 받으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장단은 청좌굿과 마찬가지로 청보장단을 사용하고, 무녀의 복장 역시 동일하다. 무가는 단군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풀이인 ‘치국잡이’를 하여 신을 청하고 인간의 소원을 비는 내용이다.

3. 오구굿 연행과정

오구굿은 망자의 영혼을 위하는 굿이다. 망자가 살았을 때 가졌던 욕구불만을 풀어주고 몸에 밴 과오와 죄업 등을 씻어서 순수의 상태로 영원한 안식처에 정착하도록 인도하는 한편, 유가족의 모든 근심과 재앙을 소멸시켜 갓은 길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진 해촌에서는 오구굿을 ‘오구자리’라고 한다.

오구굿의 절차와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⁸⁵ 굿하는 날을 받으면 무당들은 굿에 쓸 지화

85. 오구굿 역시 별신굿과 마찬가지로 재구성한 것이다. 굿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변연호의 딸 송명희와 사위인 김장길, 그리고 제보자들의 진술과 기존 조사연구를 참고하였다. 참고 자료는 최길성, 1992, 『한국무속지』; 황인주, 1996, 「수망오귀굿의 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다.

(紙花), 용선, 탑등과 기타 장식으로 사용할 소품들을 준비하고 나서 굿당을 장식한다. 굿당은 전면에 제물과 지화 등을 차려놓은 제단을 두고 제단 뒤에는 병풍을 둘러쳐서 가린다. 제단의 양쪽 옆에는 열대왕·칠여래·오방삼신불·지옥단·오색초룡·지전 등을 같은 비율로 걸어 놓고 오른쪽에 용선, 왼쪽에 탑등을 매단다. 굿당의 바깥 좌우의 기둥에는 길이가 4~5m 정도 되는 대나무로 만든 서낭대와 천왕대가 세워져 있다.

망자의 집에서는 안방에 조상상(祖上床)을 차리고 그 위에 망자의 위패와 부모님의 위패를 함께 모셔놓는다. 이렇게 하여 굿을 할 준비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저녁부터 굿을 시작하여 그다음 날 오전에 굿을 마친다.

오구굿의 연행 순서는 망자 배석 만들기-조상비나리-넋대내림-부정굿-골매기서낭굿-넋건지기-문굿-문답설법-오는 뱃노래-조상굿-초망자굿-늦동우굿-바리데기-시무염불-강신너름-세존굿-꽃노래-가는 뱃노래-등노래-베가름-소진 순이다.

4. 점복·주술

1) 점복

점복이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적 전문성으로도 예견할 수 없는 앞날의 일이나 알지 못하는 일을 주술이나 역학(易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서(秘書)등을 통해 예측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 같은 점복은 인간 생활의 길흉화복에 대한 예측과 자연현상에 의한 점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간 생활의 길흉화복에 대한 점복의 유형

입시(入試), 궁합(宮合), 승진(昇進), 신수(身數), 재수(財數), 가운(家運), 선거(選舉), 성명(姓名), 사주(四柱), 관상(觀相), 혼인(婚姻), 질병(疾病), 해몽(解夢) 등이 있다. 또 자연현상에 의한 점복에는 일월(日月), 성신(星辰), 풍운(風雲), 동물(動物), 식물(植物) 등이 있으며 풍수지리에 의한 명당(明堂)의 선택이나, 각종 비결(秘訣)에 의한 예언을 비롯해 오락의 승부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사업 따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있다.

(2) 점복에 사용하는 비결서⁸⁶

점복의 주재자는 주로 무격(巫覡), 점술가[점바치], 맹인(盲人), 관상가, 사주쟁이, 생명철학가, 지관, 풍수[풍수쟁이] 등으로서 무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류는 주역(周易)과 같은 중

86. 장철수, 1987, 「점복 및 주술」『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31쪽

국의 철학서, 금구결(金龜訣), 당사주(唐四柱), 천기대요(天機大要) 등의 비결서, 음양오행설 등의 원리에 근거한 나뭇대로의 논리를 갖고 점복행위를 한다. 울진 지방의 산간 내륙지방에서는 ‘마금’⁸⁷이 전승되고 있다. 대표적인 점복으로는 육효(六爻), 산통(算筮), 송경(誦經), 단시점(斷時占), 서화점(瑞花占), 절초점(折草占), 사주길흉지법(四柱吉凶之法), 최성법(最聖法), 당국라법(唐國羅法), 상극중자법(相剋中資法), 월식법(月食法), 일식법(日食法), 천동법(天動法), 지진법(地震法), 오성길흉결(五姓吉凶訣), 두미지법궁합(頭尾知法宮合), 우제앙영길법(又除殃迎吉法), 생거좌향길흉법(生居坐向吉凶法), 상식법(相食法), 이십사룡찰기법(二十四龍察氣法), 구랑신소재법(九狼神所在法) 등이 있다.

(3) 육효

육효는 복제가 청원자에게 술잎을 따오게 하여 그 술잎을 가지런히 한 후 청원자에게 세 번에 걸쳐 뽑도록 한 뒤 이의 개수를 확인해 세 번 합한 수에 대해 해석을 내리는 방법이다. 또 산통은 숫자가 적힌 가늘고 짧은 여러 개의 대나무 가지를 대나무 통에 넣고 흔든 뒤 청원자에게 세 번에 걸쳐 뽑도록 한다. 이어 복제는 청원자가 뽑은 대가지의 숫자를 합하여 생기와 일진을 예측한다. 울진지역에서 나타나는 독경은 대개 ‘신장경신장호출’·‘뇌공주문[귀신 체포]’·‘옥초경[귀신을 가둠]’ 등이 전승된다.

(4) 간물단지

울진지역의 독특한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화재 예방과 관련된 민속인 ‘간물단지’ 신앙을 들 수 있다.⁸⁸ 간물단지 또는 간수단지로 불리는 신체는 대개 오지향아리[뚜껑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탑, 부적, 연못, 거북 등의 주물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 토일리의 간물단지는 진화봉[읍남리 하토일 소재]으로 불리는 해발 150m가량의 산봉우리에 매장되어 있다. 단지의 높이는 약 28cm, 오지병은 높이 약 20cm가량으로 두 개 모두 주둥아리 부분(口部)이 훼손되었다. 단지 위에 평평한 돌로 덮고 그 위에 흙으로 덮은 흔적이 남아있다. 울진 토일리의 진화봉은 본래 남산(南山)으로 불렸으며 과거 울진 관아인 고산성으로부터 정오방에 자리 잡고 있다. 오방(午方)은 정남(正南)이며 화방(火方)으로서 진화봉은 고산성의 정남에 있어, 당시의 울진 읍치단위의 화재 예방을 기원하기 위한 관 주도의 공동체 신앙의 성소(聖所)로 여겨진다. 이외에 근남면 산포리의 간물단지, 북면 하당리의 간물단지, 북면 부구

87. ‘마금’은 주로 산(山)을 믿는 것으로서, 금강송면이나 죽변리 등 산간 지역과 해촌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마금을 주재하는 점바치를 ‘복제’라 칭한다.

88. 『울진군지』에 따르면 “울진읍 읍남리 토일동 남쪽 산봉우리에 예부터 토병 1개를 묻어 놓고 넓은 돌로 뚜껑을 해 덮어 놓은 곳이 있다. 이 봉우리를 진화봉이라 하는데 고종 31년까지는 매년 10월 군수가 택일하여 엽전 세 닢을 들여 염수(鹽水)를 한 병을 사서 이 토병 속에 넣으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여 연중행사로 시행돼 왔다. 또 진화봉은 관아의 정오방(正午方)에 위치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리의 간물단지, 기성면 다천리의 ‘영수독’ 신앙 등 화재와 관련한 민간신앙의 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5) 기우제

기우제의 관행은 농경시대에 농사에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수를 얻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등 인류사의 시작부터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⁸⁹

울진지역의 기우제는 대개 유교적 제의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헌공축원형(獻供祝願型)」과 개나 돼지 따위의 동물을 용소와 같은 성소에 끌고 가 죽인 뒤 이의 피를 뿌려 비를 오게 하는 「유혈살포형」을 비롯해, 영험 있는 산 정상에서 오게 하는 불을 놓은 뒤 연기를 피워 올려 비를 오게 하는 「산상봉화형」의 형태들이 주된 형태를 이루었다. 울진의 기우제를 위한 기우소로는 울진읍 가원동의 사직단(社稷壇), 죽변의 죽변추(竹邊湫), 울진 현내의 수전대(水殿臺), 근남 구고동 노송산의 구고추(九臯湫), 북면 덕구리 온정동의 응봉추(鷹峯湫), 금강서면 불영사 내의 불현추(佛峴湫), 매화면 매화리의 남수산(嵐岵山), 평해읍의 사직단, 온정 백암산, 온정면 외선미리의 곡룡추(谷龍湫), 기성면 기성리의 용추, 평해읍 직산리의 직산용추(直山龍湫) 등지로 관계 수리 시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왕성하게 기우제의 관행이 행해졌다.

89. 문헌 기록이나 현장 채집자료 등을 통해 기우제는 다양한 장소[종묘, 사직, 신사, 명산, 대천, 절], 주재자[왕, 관료, 무당, 종, 서민, 부녀자], 그리고 대상신[천신, 용신, 산천신, 조상신, 산신, 뇌우(광철이)] 등의 구성요건이 서로 조합하여 이뤄지고 있다. 기우제의 제의별 유형들은 대개 강우를 위한 제의 방식의 성격에 따라 화해형, 대항형, 유도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